



## 정중호 | 계명대

### 1. 서론

다문화 사회에 대해 논할 때 주로 이주현상을 중심으로 논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주를 논할 때는 이주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주(migration) 뿐 만 아니라 귀환이주(return migration), 재이주(remigration),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sup>2)</sup>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귀환이주를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귀환이주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

1)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246).

2) Dennis Conway, Robert B. Potter and Joan Phillips, *The Experience of Return Migration: Caribbean Perspectives*, (Hants & Burlington: Ashgate, 2005); Vinay Gidwani and K. Sivaramakrishnan, "Circular Migration and Rural Cosmopolitanism i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7 (2004), 339-367.

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한국도 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많은 전란을 겪었으며 그 때마다 포로와 귀환 혹은 귀환이주라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특히 해방 후 귀환이주가 대규모로 있었고, 장래를 바라볼 때 통일이라는 사건에도 귀환이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727만 명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도 귀환이주라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2007년부터 이주자보다 귀환이주자의 숫자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그리고 한국의 이주 정책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를 한국에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노동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논할 때 귀환이주 현상을 주목하면서 성격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에서 귀환이주

---

3) 정중호, “‘귀환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구약논단』 통권 39집 (2011), 134-154.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외국인 숫자는 1,409,577명, 한국인 전체 인구는 50,734,384명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2. 9. 9;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준 재외동포 숫자는 7,268,771명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12. 6. 5 게재.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2&seqno=334627>

5) 2010년 경우 해외이주신고자는 889명이지만 귀환이주자(영주귀국신고자)는 4,199명이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이주 신고한 숫자를 합하면 2010년 해외이주자총계는 21,018명이다. 그런데 감안해야 할 것은 해외 이주자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2012년 3월 기준으로 62,986명이다. 이들은 거의 귀환이주자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해외 현지 이주 신고자를 감안해도 해외이주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귀환이주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1 외교백서, 291;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자총계”; 행정안전부, “제19대 총선 선거인 명부 결과”.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2&seqno=274443>

가 중요함을 주목하면서 구체적으로 룻기에서 귀환이주 전승이 핵심적인 주제임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룻을 이주자가 아니라 귀환이주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려는 것이며, 다윗 왕실 족보(룻 4:18-22) 문제도 귀환이주를 중심으로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 2. 귀환이주자 나오미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과부이면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는 가난한 과부이면서 모암 여자인 룻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룻기의 첫 장면이다. 따라서 룻기는 ‘희망’에 대해 질문하고 ‘희망’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לוי**(고엘) 관습과 시형제 결혼(levirate marriage) 관습으로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룻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으며 그 이면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룻기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나오미나 룻에게 ‘과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가난한 자’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다. 분명히 과부이면서 가난한 두 여자였지만 의도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룻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경우 고엘이 필요하고, 아들 없는 과부의 경우 시형제 결혼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고엘의 활동이 나타나고 시형제 결혼이 실시된 룻기의 경우 이러한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sup>6)</sup> 그 이유가 무엇인가? 룻기의 경우는

---

6) 룻기에 과연 시형제 결혼(신 25:5-10)이 실시되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되어있는 다말의 경우(창 38장)까지도 시형제 결혼으로 본다면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고엘과 시형제 결혼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단서는 룯기의 구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룯기를 이해할 때 룯을 주인공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압에서 온 외국 여인이며 과부인 룯이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다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룯과 보아스의 사랑이야기도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책 이름도 ‘룯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나오미의 존재는 배후의 인물로 기억되며 조연으로서의 위치만 차지한다고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코 조연이 아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슬픈 마음을 가득 안은 채 고국으로 돌아왔다.<sup>7)</sup> 그런데 그녀가 룯과 함께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고 손자까지 보았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나오미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룯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룯의 이야기와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8)</sup>

룯기에서 나오미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가 있다. 브랜너(A. Brenner)는 나오미의 이야기와 룯의 이야기가

---

도 확대된 시형제 결혼으로 볼 수 있다. Timothy Willis, *The Elders of the City: A Study of the Elders-Laws in Deuteronomy* (Atlanta: SBL, 2001), 262-263, 302. 시형제 결혼은 이미 나오미가 언급한 바 있고(룯 1:11-13), 나오미가 룯을 타작마당으로 보내어 보아스와 시형제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캐тч(Josh Ketchum)은 룯기의 경우 ‘고엘’ 관습과 시형제 결혼이 결합되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Josh Ketchum, “The ‘go’ el custom in Ruth a comparative study,” *Restoration Quarterly* 52 (2010), 237-245.

7) ‘모압 지방(מִצְרַיִם וְעַד הַיַּרְדֵּן) 스테 모압)’이라는 구절은 구약 전체에서 모압을 지칭하는 용어로 18회 사용되었는데 룯기에만 5회 나타난다(룯 1:1, 2, 6, 22; 4:3). 그리고 베들레헴의 밭이라는 의미로 מִצְרַיִם(스테)가 사용된 경우는 6회 나타난다(룯 2:2, 3(2회), 6, 8, 9). 따라서 모압을 ‘모압 지방’이라 특이하게 사용한 것을 통해, 곡식이 자라는 ‘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압의 밭과 베들레헴의 밭을 대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8) Athalya Brenner, “Naomi and Ruth”, VT 33 (1983), 385-397.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 후대에 결합되었다고 주장했다.<sup>9)</sup> 글랜즈만(G. Glanzmann)은 룯기의 포로후기 저작설을 비판하면서 룯기가 고대로부터 3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프린스루(W. S. Prinsloo)는 룯기에서 주도적 인물은 나오미이며 룯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중개자임을 강조하였다.<sup>11)</sup>

룯기에서, 이름을 소개하는 이야기의 서두에서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룯 1:2)라 나타나지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룯 1:3)이라 나타나면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장에서도 첫 단어는 ‘나오미에게’로 시작되고 3장에서는 나오미가 연출가로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룯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 룯은 사라지고 나오미가 부각되어 있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룯 4:17)는 소리만 요란하다. 즉 룯기는 나오미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전면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구조상 룯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룯기에는 이름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이름도 나오미가 가장 많이 거명되고 있다. 나오미의 이름은 19회 거명되며, 보아스라는 이름은 17회, 그리고 룯의 이름은 12회 거명되고 있다.<sup>12)</sup>

나오미의 이야기가 룯기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귀환이주자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שׁוֹבָה(슈

9) 윗글, 385-397.

10) G. Glanzmann, "The Origin and Date of the Book of Ruth", *CBQ* 21 (1959), 203.

11) W. S. Prinsloo,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VT* 30 (1980), 334-337.

12) 「개역개정」에는 룯의 이름이 아주 많이 거명되는 것같이 번역되어 있지만(27회) 대명사를 ‘그녀’라고 번역하지 않고 ‘룯’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15회)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실제 룯의 이름이 거명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룯 1:4, 14, 16, 22; 2:2, 8, 21, 22; 3:9; 4:5, 10, 13.

브/돌아가다)라는 용어의 사용빈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짧은 이야기 중에 ‘슈브’라는 단어가 15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돌아옴’ 혹은 ‘귀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룻 1:6, 7, 8, 10, 11, 12, 15[2회], 16, 21, 22[2회]; 2:6; 4:3, 15).<sup>13)</sup> 이 가운데서 ‘귀환’의 방향을 결정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의 친정(‘어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또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은 나오미와 더불어 유다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1장에 나타나는 ‘슈브’의 사용빈도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모압으로 ‘귀환’ 하는데 6회(룻 1:8, 11, 12, 15[2회], 16), 유다로 ‘귀환’ 하는데 6회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룻 1:6, 7, 10, 21, 22[2회]).

### 3. 룻도 귀환이주자인가?

그러면 귀환이주자인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을 룻기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런데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의 정체성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나오미와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룻 3:9, 16)고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룻기가 룻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룻기에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매티유(Victor H. Matthews), 하이먼(R. T. Hyman), 글로버(Neil Glover)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매티유는 사회적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나오미는 아기를 얻고서야 비로소 베들레헴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복귀하였고, 룻도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베들레헴 사회에 완전히 합류하게 되었다고 주

13) 룻 4:15에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으로 분사형인 מְשֻׁבָּ (메쉬브)가 나타난다.

장하였다.<sup>14)</sup>

하이먼(R. T. Hyman)은 룯기에 나타나는 16개의 질문을 4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핵심이 룯과 나오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 주장하였다.<sup>15)</sup>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가 질문을 통해 룯의 정체성 변화를 이끌었음을 분석해 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도 역시 외국인 룯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정체성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국인 룯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보아스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을 놓쳐버린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룯은 ‘죽은 자의 아내’ 즉 말론의 아내로서 귀환이주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는 룯을 ‘능력 있는 여인’으로 불렀던 것이다.

글로버(Neil Glover)도 룯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주로 민족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즉 모압인인 룯이 이스라엘인으로 변화하는 추이를 추적한 것이다.<sup>16)</sup> 글로버는 인류학 이론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민족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고백으로 민족이 변한다는 일방적 상황론자(unilateral situationalist)의 주장<sup>17)</sup>,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해 민족이 변한다는 동정적 구성주의자(sympathetic constructivist)의 주장, 태어날 때부터 민족이 정해지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태생주의자(hard

---

14) Victor H. Matthews, "The determination of social identity in the story of Ruth," *Biblical Theology Bulletin* 36 (2006), 49-54.

15) Ronald R. Hyman, "Questions and Changing Identity in the Book of Ruth,"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9 (1984), 200.

16) Neil Glover, "Your people, my people: an exploration of ethnicity in Ruth," *JSTOT* 33 (2009), 293-313.

17) 일방적 상황론자(unilateral situationalist)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콕센(W. Coxen)과 라쉬코우(I. Rashkow)를 들 수 있다; W. Coxen, "Was Naomi a Scold? A Response to Fewell and Gunn," *JSTOT* 45 (1989), 26; I. Rashkow, "Ruth: The Discourse of Power and the Power of Discourse," in 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32.

primordialist)의 주장을 열거하였다.<sup>18)</sup> 우선 글로버는 룻이 나오미의 민족이 되겠다고 고백했지만 나오미는 침묵했고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룻 자신도 여전히 모압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룻 2:10)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 상황론자의 주장을 비판하였다.<sup>19)</sup>

글로버는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은 ‘룻’이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거명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인정하였을 때 거명된 룻이라는 이름을 통해(룻 4:13)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았다. 마치 보아스나 나오미가 이름으로만 거명된 것처럼 단순히 룻이라고 불리었을 때 룻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긍정적 구성주의자(Optimistic Constructivist)라 부를 수 있다.<sup>20)</sup>

하이먼과 마찬가지로 글로버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 고엘의 도움과 시형제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인 아니라 이스라엘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결혼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룻의 정체성 변화의 단서는 룻에 대한 명칭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다. 룻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우선 룻의 이름이 나타난다(룻 1:4, 14, 16; 2:2, 8, 21, 22; 3:9; 4:5, 10, 13). 그런데 룻의 이름에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즉 ‘모압 여자’라는 수식어가 나타나며(룻 1:4; 2:2, 6[2회], 21; 4:5, 10), ‘외국(이방) 여인’ (룻 2:10), ‘죽은 자의 아내’ (룻 4:5), ‘말론의 아내’ (룻 4:10),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 4:11), ‘소년 여자’ (룻 4:12)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룻은 자신을 가리켜 ‘시녀’ (룻 2:13)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특히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용어를 보아스가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

18) Neil Glover, *룻*, 295.

19) *룻*, 296.

20) *룻*, 300-302.

필요가 있다(룻 3:11). 그리고 나오미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며느리’라는 용어와(룻 1:6, 7, 8, 22; 2:20, 22; 4:15), ‘시어머니’(룻 1:14; 2:11, 18, 19, 23; 3:1, 6, 16, 17)라는 용어가 따라 다닌다.

룻에 관한 수식어 중 가장 먼저 나타나고 반복되는 용어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다. ‘모압 여인’이라는 호칭은 주로 해설자가 반복해서 사용한 호칭인데(룻 1:4, 22; 2:2, 21), 보아스의 사환이 사용한 호칭이며(룻 2:6), 나중에 보아스가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다(룻 4:5, 10).

‘모압 여인(מֹאבִּיּוֹת מֹאבִּיּוֹת 모아비요트)’이라는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외국 여인(חֵרֶת נֹכְרִיָּה 노크리아)’(룻 2:10)이다. 더구나 모압 여자다. 모압인에 대해서는 극도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근거를 토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외국 여인’이라는 ‘노크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이주자(גֵּר 게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sup>22)</sup>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게르’로 표현하기는 해도 ‘노크리(נֹכְרִי)’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sup>23)</sup> 외국인인 안식년의 이자를 면제해 주라는 규정에서도 제외되었으며(신 15:3) 일반적인 이자 면제 규정에도 제외되었다(신 23:21). 심지어 룻이 외국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브로릭(Georg Braulik)은 지적하였다.<sup>24)</sup> 이러한

---

21)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인을 배척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근친상간의 후예라는 점(창 19:30-38), 이스라엘 백성을 박대한 점(신 23:3-4),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는 점(민 22:1-7), 유혹하여 우상숭배를 하도록 한 점(민 25:1-3) 등이다. 이로 인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3)고 기록되어 있다.

22)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통권 27집 (2008), 72-74.

23) Agenthe Siquans, “Foreignness and Poverty in the Book of Ruth: A Legal Way for a Poor Foreign Woman to Be Integrated into Israel,” *JBL* 128 (2009), 448.

24) Georg Braulik, “The Book of Ruth as Intra-Biblical Critique on the Deuteronomic Law,” *Acta Theologica* 19 (1999), 13.



아스에게 한 말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외국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룻 2:10).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라면 룻의 위상이 달라진다. 나오미의 가족의 일원이 되며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며느리’라는 용어는 해설자가 주로 사용하였다(룻 1:6, 7, 8, 22; 2:20, 22).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용어 ‘시어머니(אִמָּתִית 하모트)’라는 용어도 해설자가 주로 반복해서 9회나 사용하였다(룻 1:14; 2:11, 18, 19, 23; 3:1, 6, 16, 17). 물론 나오미는 룻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딸’이라 부르며(룻 1:11, 12, 13; 2:2, 22; 3:1, 16, 18) 가족으로서의 친근함을 표시하였고 ‘동서’(룻 1:15) 혹은 ‘남편’(룻 2:1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룻이 며느리임을 말하였다.<sup>29)</sup>

다른 사람이 룻에게 ‘며느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룻이 아들을 낳고 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해 주면서 인정해준 것이 유일하다; “...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룻 4:15). 따라서 룻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룻을 가리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부르기보다 나오미와 함께 온 외국 여인이었을 뿐이다. 즉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룻이 외국인이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다. 보아스는 이삭줍기를 하는 룻에게 ‘시어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타작마당에서도 룻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여(룻 2:11; 3:17) 룻과 나오미의 며느리-시어머니 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해설자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룻이 귀

---

29) 보아스도 ‘나의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나(룻 2:8; 3:10, 11) 이는 친족으로서 그리고 연장자로서 친근하게 룻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환이주자임을 또한 이야기 하고 있다. 1장 7절에는 나오미와 더불어 롯을 포함한 두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걸어갔다고 해설자는 묘사하고 있다. 롯이 나오미의 가족으로서 귀환의 길을 떠났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롯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떠나는 것인데도 나오미의 가족의 일원이었기에 귀환이주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롯 자신도 귀환이주자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롯은 동서인 오르바와 더불어 나오미에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가겠 나이다”(롯 1:10)라고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였다. ‘돌아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롯은 자신의 입으로 귀환이주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또한 1장 22절을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이며 모압 여인인 롯이 그녀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헬에 이르렀다.

해설자는 롯이 ‘돌아왔다(הָשִׁיבָהּ) 핫샤바)’고 표현하면서 귀환이주자로 보았다. 『개역개정』은 마치 나오미만 ‘돌아온’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오미도 돌아오고 롯도 돌아왔다고 각각 삼인칭 단수 동사로 표기하고 있다. 해설자는 처음부터 롯이 귀환이주자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만 베들레헬의 이웃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보아스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보아스의 사환도 롯이 ‘돌아왔다(הָשִׁיבָהּ) 핫샤바)’고 표현하면서 롯을 귀환이주자로 보았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2:6). 그러나 보아스의 사환은 롯이 외국인인 ‘모압 여인’이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 하면서 롯의 귀환 이주자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사실 사환은 보아스의 물음 “이는 누구의 소녀냐?”(룻 2:5)라는 룻의 소속에 대한 물음에 답변한 것이다. 당시 여자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했다. 즉 어릴 때는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환은 룻이 나오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대답을 강조하였고 그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룻이 이미 나오미 가문의 한 가족으로서 귀환한 이주자였지만 결국 룻의 정체성이 귀환이주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웃의 인정을 얻도록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다. 보아스는 룻이 단순한 외국 여자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내임을 강조하였다. 즉 ‘네 남편이 죽은 후로’(룻 2:11), ‘죽은 자의 아내’(룻 4:5), ‘말론의 아내’(룻 4:10) 등의 용어로서 룻이 이스라엘 남자 말론의 아내였음을 강조하였다.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라면 룻은 귀환이주자의 가족인 것이고 곧 귀환이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형제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군가 ‘구속자’ 곧 ‘고엘’이 되어 룻의 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된다. 보아스가 등장하여 룻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 그리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보아스는 이러한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룻이 시형제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죽은 자의 아내(מתה-אשה 에쉐트-하멧트, 룻 4:5)’라는 호칭은 룻기(4:5)와 신명기(25:5)에만 나타나는데 신명기의 경우에는 시형제 결혼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즉 ‘죽은 자의 아내’란 ‘과부’의 신분을 부여하는 표현인 것이다.<sup>30)</sup>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시형제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이다. 또한 신을 벗는 의식도 시형제 결혼 관습에서 나온 의식이다.

30) Agathe Siquans, 윗글, 450.

룻기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은 나오미가 자기 아들을 가리켜 말 한 장면에서다(룻 1:8; 2:20). 그러나 자기 아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중요한 전환을 마련하였다(룻 4:10). ‘죽은 자’라는 표현은 룻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용어인데 미리부터 나오미의 입을 통해 이 용어를 배치한 것은 룻기 이야기꾼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들레헬에서 인정받은 룻의 정체성 변화를 요약해보자면 외국인인 모압여자가 보아스의 도움으로 ‘죽은 자(말론)의 아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이 경우 룻은 귀환이주자 가정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즉 룻이 외국인에서 귀환이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룻이 변한 것이 아니라 룻을 바라보는 이웃의 생각이 변한 것이다. 룻은 결코 ‘게르(이주자)’가 된 적이 없었다. 룻기의 해설자는 룻이 외국인이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베들레헬 사람들은 룻을 외국인으로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보아스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룻의 정체성이 말론의 아내라는 사실을 천명하여 나오미와 동일한 신분, 즉 귀환이주자로 인정받게 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룻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있다. 보아스가 룻을 ‘능력 있는 여인(יְהִי אִשָּׁת עֹשֶׂה חַיִּיל) (룻 3:11)이라 불렀다. 이 용어는 잠언 31장에도 나타나는 용어로 지혜의 표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가문을 책임감 있게 일으켜 세우는 여인을 가리키는 용어다.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용어는 룻기와 잠언(잠 12:4; 31:10)에 만 나타나는 용어로 지혜와 관련이 있다. 지혜(חָכְמָה) 호크마)는 여성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잠언 31장에 ‘능력 있는 여인’의 이야기로 묘사된 것이다. 지혜는 잠언에서 의인화 되어 나타나며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고 거의 신격화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능력 있는 여

인'이라는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상의 예우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룯이야말로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있는 여인'임을 보아스가 인정해 준 것이다. 보아스는 룯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격상시켰으며 보아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모두 안다'고 알려주면서 룯을 격려하였다.<sup>31)</sup>

그리고 보아스는 룯을 도우면서 룯의 정체성을 마치 족장인 아브라함처럼 높여주었다. 보아스는 이삭줍기한 밭에서 룯에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룯 2:11) 것에 대해 칭찬하였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아비의 집(부모)을 떠났고 ‘친척(מֹלָדֹת) 몰레데트’과 ‘땅(אֶרֶץ) 에레츠’을 떠났다(창 12:1). 룯기에는 מֹלָדֹת אֶרֶץ(에레츠 몰라드테크/고국)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땅과 친척’으로 되어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룯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심지어 나오미의 승인도 보이지 않는다.<sup>32)</sup> 트리블(Phyllis Tribe)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용감한 결단을 룯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33)</sup>

더구나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룯을 축복하는 말 가운데 룯을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에 비유하였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며 다말은 시형제 결혼을 통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경우이다.<sup>34)</sup> 특히 주목할 것은 라헬과 레아는 야곱과 친척이기는 하지만 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야곱은 시리아에서 귀환이주하였는데 이 때 라헬과 레아도 야곱과 결혼하였기에 한 가족으로 귀

31) Ronald R. Hyman, *룯*, 200.

32) Julie L. C. Chu, “Returning home: the inspiration of the role dedifferentiation in the Book of Ruth for Taiwanese women,” *Semeia* 78 (1997), 48.

33) Phyllis Trib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173.

34) Alan T. Levenson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과 룯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Alan T. Levenson, “The mantle of the matriarchs: Ruth 4:11–15,” *JBO* 38 (2010), 237–243.

환 이주한 것이다.

#### 4. 다윗 왕실 족보와 귀환이주

룻기의 핵심이 귀환이주라는 주제라면 다윗 왕실의 족보(룻 4:18-22) 문제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언뜻 보기에다 룻기에서 다윗 왕실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뜻밖의 내용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이 족보는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sup>35)</sup>

족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룻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다윗 왕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sup>36)</sup> 니일슨(Kirsten Nielsen)은 룻기가 다윗 왕실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sup>37)</sup> 초기에는 다윗 왕조 족보와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최종 본문에는 다윗 왕조의 족보와 연결되었고 다섯 권의 축제용 두루마리인 메길로트의 한 권으로서 칠칠절(오순절)에 읽혀지는 중요한 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룻기의 족보가 다윗 왕실을 옹호하기 위해 첨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다윗 왕실을 옹호하기 위해 이 족보를 첨가했다면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에서 시작되는 족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여인인 모압 여인이 조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과연 다윗 왕실을 옹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다윗 왕실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족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켄펠트(K. D. Sakenfeld)는 다윗의 정통성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전제 위에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

---

35) G. Glanzmann, *룻글*, 207.

36) W. S. Prinsloo, *룻글*, 340.

37) Kirsten Nielsen, *Ruth: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9.

다고 보았다.<sup>38)</sup> 즉 룯기의 이야기가 다윗 왕실에 도움을 주었다기보다 외국 여인들을 향한 포용적 태도의 정당성을 심어주려고 왕실의 권위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룯이 외국인인 모압 여인의 자격이 아니라 귀환이주자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그리고 룯은 이미 ‘능력 있는 여인’(룯 3:11)이라 불릴 정도였으며, 다윗 왕실의 조상이자 족장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룯 4:11), 그리고 다말(룯 4:12)과 비교될 정도로 룯의 위상이 격상되어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룯기와 다윗 왕실의 족보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버얼린(Adele Berlin)은 주장하기를 “다윗과의 관계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지위를 들어 올리는 경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이야기의 지위도 올려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다윗 왕실의 족보가 룯기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다윗 왕실의 족보가 나타난다는 것은 룯기가 다윗 왕조의 합법성과 권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며, 나오미 가정의 귀환이주 이야기가 왕조 설화로써 손색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족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0)</sup> 족보를 분석해 보면 제7대는 명예로운 조상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족보의 제7대에 보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10대도 중요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자리인데 다윗이 제10대에 언급되며 룯기가 끝을 맺는다. 그러나 제7대가 보다 더 중요한 자리이며 다윗은 후광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38) K. D. Sakenfeld, 「현대성서주석-룯기」(민경진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8; 원제는 *Ruth* (John Knox Press, 1999).

39)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110.

40) 보다 더 자세한 다윗 왕실의 족보는 대상 2:5-1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잘 구성된 족보이며 의도적인 족보임을 알 수 있다. 보아스를 제7대에 위치시키기 위해 다윗 왕실의 중요한 조상인 유다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에 족보로만 다윗 왕실과 연결되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룻기가 다윗 왕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룻 1:1, 2)이라는 표현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에브랏...베들레헴’ (룻 4:11)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룻은 ‘능력 있는 여인’이었기에 다윗 왕실의 조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인물의 반열에 들어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던 나오미가(룻 1:4) 이제 다윗 왕실 족보의 10번째 세대에서(룻 4:22) 다윗 왕을 얻었다.

그리고 **נִלְחִין**(톨레도트/족보)라는 단어의 어근인 **נָלַח**(알라드/아이를 낳다) 동사는 룻기 전체에서 이미 8회나 나타나고 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라드’ 단어를 사용한 예를 보면 ‘아들’ (룻 1:5, 12), ‘고국’ (룻 2:11) 등이며 4장에서는 계속 아이를 낳는다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룻 4:12, 13, 15, 16, 17). 따라서 다윗 왕실 족보가 단순히 첨가된 것이 아니라 룻기 이야기 전체와 세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룻기의 다윗 왕실 족보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아스의 후덕함이다.<sup>41)</sup>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며 고엘의 역할과 시형제 결혼 관습의 실행자로서 가난하고 과부인 룻과 나오미를 지혜롭게 도왔기에 왕실 조상의 설화로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왕조의 선한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

41) K. D. Sakenfeld, *룻*, 28.

그러나 다윗 왕조와 롯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롯기의 핵심 주제와의 관련성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롯기에는 보아스만 주인공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이라는 주제도 여러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롯기를 살펴보면 분명 나오미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며 나오미는 귀환이주자이다. 따라서 귀환이주자와 왕조 설화의 관련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왕조의 시조설화에 주인공으로 귀환이주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다윗왕조를 창건한 다윗도 불레셋에서 귀환 이주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귀환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귀환이주자를 인도해 온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또한 포로후기의 지도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지도자였다.

왜 왕조의 시조와 중요한 지도들이 귀환이주자였을까? 우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 귀환이주 사건이라는 사실에서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인 출애굽 사건은 대표적인 귀환이주 사건이며,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한 사건 역시 중요한 귀환이주 사건이다. 귀환이주자라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가 귀환이주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귀환이주자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회에서 필요한 지도자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중해, 아라비아 등지의 교차지점으로 사람과 물자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국제무역에 유리한 지역임과 동시에 국제정세가 악화될 때는 강대국의 군대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시든 전쟁 시기든 이 지역은 이동성이 강한 지역이며 이주와 귀환이주가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수많은 이주자들이 모여드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귀환이주자 집단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왕실과 지

도자가 귀환이주자로 정체성을 세운 연유는 이외로 간단하다.

귀환이주자는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차이나는 점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웨 신앙과 결부될 때 그 주장은 강력해진다. 토지의 소유권이 아웨 하나님에게 있고 아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배해주신 토지를 경작하고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토지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귀환이주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귀환이주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에서 귀환이주자와 아웨 신앙은 함께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궤가 함께 귀환하였고, 페르시아 시대 때 성전기물이 함께 돌아왔다.

토지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인 왕실이 귀환이주자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주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환이주자이다. 귀환이주자들은 이주의 고통과 불안과 서러움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은 이주자가 많은 사회에서 기득권과 능력과 책임의식이 있으면서도 이주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환이주자들은 당연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귀환이주와 관련이 되어있기에 왕실이 귀환이주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벰 여인이 기근을 만나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귀환한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왕하 8:1-6). 기근으로 블레셋에 이주했던 수벰 여인이 다시 귀환했을 때 토지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때 왕이 나서서 수벰 여인에게 토지를 돌려주었을 뿐 만 아니라 이주 기간 동안 생산한 소출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였다. 귀환이주자에게 토지를 회복시켜주고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야말로 지도자인 왕의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윗

왕실의 조상인 보아스가 귀환이주자인 나오미와 롯을 도운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 왕실 가족다운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롯기에 나타나는 다윗 왕실 족보는 후대에 단순히 첨가된 것이 아니라 롯기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롯기를 다윗 왕실의 시조 설화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였다. 롯기가 이러한 위상을 차지한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롯기가 귀환이주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오미 뿐 만 아니라 롯도 귀환이주자로 조명하면서 귀환이주자를 돕는 다윗 왕실, 그리고 귀환이주자 가문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실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 5. 결론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국의 역사 속에 귀환이주 전승이 면면히 흐르고 있고 귀환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성경적 대안을 귀환이주자 전승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로서 롯기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롯기에서 귀환이주 전승이 핵심적인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롯이 이주자가 아니라 귀환이주자임을 밝혔고, 다윗 왕실 족보(롯 4:18-22)도 롯기의 귀환이주 전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롯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롯의 이야기라기보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오미의 귀환이주 이야기가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롯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외국 여인이라는 점과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지만 나오미와 더불어 귀환 이주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룯의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은 실체가 없는 정체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룯의 귀환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아스의 역할이 부각된다. 보아스는 룯을 만날 때부터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인정을 하였으며 고엘의 역할과 시형제 결혼 상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룯으로 하여금 귀환이주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룯을 인도하였다.

다윗 왕실 족보가 룯기에 나타난 이유는 룯기의 이야기가 다윗 왕조의 시조설화로 손색이 없기에 나타난 것이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더불어 룯의 이야기가 귀환이주 전승이기에,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가 귀환이주자를 돕는 이야기이기에, 귀환이주자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다윗왕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참고문헌

-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통권 27집 (2008), 70-88.
- 정중호, “‘귀환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구약논단」 통권 39집 (2011), 134-154.
-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Braulik, Georg, “The Book of Ruth as Intra-Biblical Critique on the Deuteronomic Law”, *Acta Theologica* 19 (1999), 1-20.
- Brenner, Athalya, “Naomi and Ruth”, *VT* 33 (1983), 385-397.
- Chu, Julie L. C., “Returning home: the inspiration of the role dedifferentiation in the Book of Ruth for Taiwanese women”, *Semeia* 78 (1997), 47-53.
- Conway, Dennis, Robert B. Potter and Joan Phillips, *The Experience of Return Migration: Caribbean Perspectives* (Hants & Burlington:

- Ashgate, 2005).
- Coxen, W., “Was Naomi a Scold? A Response to Fewell and Gunn”, *JSOT* 45 (1989), 25–37.
- Gidwani, Vinay and K. Sivaramakrishnan, “Circular Migration and Rural Cosmopolitanism i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7 (2004), 339–367.
- Glanzmann, G., “The Origin and Date of the Book of Ruth”, *CBQ* 21 (1959), 201–207.
- Glover, Neil, “Your people, my people: an exploration of ethnicity in Ruth”, *JSOT* 33 (2009), 293–313.
- Hyman, Ronald R., “Questions and Changing Identity in the Book of Ruth”,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9 (1984), 189–201.
- Ketchum, Josh, “The go’el custom in Ruth a comparative study”, *Restoration Quarterly* 52 (2010), 237–245.
- Levenson, Alan T., “The mantle of the matriarchs: Ruth 4:11–15”, *JBQ* 38 (2010), 237–243.
- Matthews, Victor H., “The determination of social identity in the story of Ruth”, *Biblical Theology Bulletin* 36 (2006), 49–54.
- Nielsen, Kirsten, *Ruth: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Prinsloo, W. 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VT* 30 (1980), 330–341.
- Ramirez Kidd, Jose E., *Alterity and Identity in Israel: The נָכִיחַ in the Old Testament*, BZAW 283 (Berlin: De Gruyter, 1999).
- Sakenfeld, K. D., 민경진역, 「현대성서주석-룻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Siquans, Agenthe, “Foreignness and Poverty in the Book of Ruth: A Legal Way for a Poor Foreign Woman to Be Integrated into Israel”, *JBL* 128 (2009), 443–452.
- Trible, Phyllis,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 Willis, Timothy, *The Elders of the City: A Study of the Elders—Laws in*

*Deuteronomy* (Atlanta: SBL, 2001).

검색어

귀환이주

룻기

나오미

룻

보아스

## Traditions of Return Migr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Joong-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return migration is a key theme in the book of Ruth,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turn mi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refocus the character of Ruth as a *return* migrant, rather than a simple migrant. Finally, the Davidic royal genealogy(Ruth 4:18-22) will be reinterpreted in terms of this return migration.

When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Ruth, it can be found that the story of Naomi, rather than the story of Ruth, occupies the core and the return migration story of Naomi forms the center of the structure.

www.kci.go.kr

Although Ruth's identity as a foreign woman is combined with her identity as Naomi's daughter-in-law, it is clear that Ruth returns with Naomi.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how Ruth's identity as a return migrant is to be accepted in Bethlehem community. Here the role of Boaz is to be highlighted. At first sight, Boaz regards Ruth as Naomi's daughter-in-law. Playing the roles of *Goel* and a levirate marriage partner, Boaz helps Ruth to be recognized as a return migrant.

The reason why the Davidic royal genealogy is shown in the book of Ruth is because the story of Ruth is an ideal narrative that functions as a foundational story for the Davidic dynasty. The story of Ruth and Naomi is a tradition of return migration, and the story of Boaz is to help returning migrants. Since the Davidic dynasty and national leaders have the character of returning migrants, the book of Ruth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our understanding of the house of David.

## Key words

Return migration

Book of Ruth

Naomi

Ruth

Boaz

- 투고일: 2012년 10월 05일
- 심사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